

중학생 92%가 1분에 지문 1개 못 읽는다

(평균 12개 문장)

AI 시대, 문해력 위기

(4) 교과서도 못 읽는 아이들

사방에 정보 뜨는 솜뿔에 익숙
책 볼때도 시선 지그재그 이동
99.3% '문해력 결핍'으로 나타나

초등학생과 중학생 10명 중 9명 이상 이 학교 교과서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스마트폰과 솜뿔(짧은 영상)에 중독된 학생일수록 어휘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확인됐다.

본지가 국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2024년 충남교육청이 진행한 문해력 검사 보고서를 입수·분석한 결과, 초등생의 98%, 중학생은 92%가 정해진 시간 동안 주어진 교과서 지문을 다 읽지 못했다. 충남교육청이 '난독과 문해력 연구소'와 함께 진행한 검사에는 중학생(1~3학년) 145명, 초등 3학년 97명이 참여했다.

해당 검사는 학년별 국어 교과서 지문이나 교과서에 나오는 글에서 평균 12~13개 문장(165~166개 단어)을 발췌해 학생이 제한 시간 안에 다 읽는지, 학생 시선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카메라로 추적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책을 어렵지 않게 읽는 성인의 읽기 속도가 초당 4~5개 단어라는 서울대 연구 등을 토대로 학생의 읽기 제한 시간을 1분(초당 2.5~3개 단어)으로 정했다.

어휘력이 부족한 학생도 많았다. 지문에 등장하는 어휘의 뜻을 묻는 테스트에서 초등학생 참가자의 93%, 중학생의 96%가 기준 점수(50~60점)에 미달했다. 연구진은 시간 내 지문을 완독하고, 어휘 테스트도 기준 점수를 넘어야 문해력이 부족하지 않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초등학생의 전원, 중학생의 99.3%가 '문해력 결핍'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2023년 충남 지역 초·중학생 15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초등생의 72%, 중학생의 93%가 시간 내 완독을 못했다. 박세당 난독과 문해력 연구소 소장은 "무작위로 뽑은 학생 상당수가 교과서 지문을 끝까지 못 읽는 것을 보면 10대의 문해력 저하가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최인준·오주비 기자 A3면에 계속



“아미고”... 건배하는 한국·브라질 대통령 부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부인 잔자 룰라 다 시우바 여사의 국빈 방한 환영 만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사탕수수즙을 증류한 브라질 술 '까사사'로 만든 칵테일을 마셨다. 이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참으로 존경해왔던 지도자이자 저의 친구, 동지, 아미고(amico·포르투갈어로 친구인 룰라 대통령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기사 A5면**

“러시아의 공격 저지해야 인·태 침략자도 억제 가능”

(인도·태평양)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 4주년을 맞았다. 6:25 전쟁(1129일)의 기록을 이미 훌쩍 넘어섰지만, 종전의 돌파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중재에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네 번째 겨울을 맞은 우크라이나 국민은 흑한의 추위와 폭격의 공포에 신음하고 있다. 이에 주한유럽연합(EU) 대사와 24개 회원국 대사단은 전쟁 종식과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한 국제 사회의 행동을 촉구하는 공동 기고문을 본지에 보내왔다.

러시아, 우크라 침공 4년... 주한 EU 24국 공동 기고문

우리는 오늘 대대적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주년을 맞이했다. 2026년은 이 전쟁이 종식되는 해가 돼야 한다.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원하며, 이 평화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평화는 정의롭고, 지속 가능하며 신뢰 가능하고 국제법에 부합해야 한다. 침략이 보상을 받는지, 아니면 저지되는지에 따라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침략자들에게 자국이 될

수도, 억제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민간인들을 매일 공격하고 살상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국민 수백만 명이 어둠과 추위,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종결시켜야 한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평화

를 누릴 자격이 있다. 전쟁 발발 초기부터, 한국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 수호에 있어 동맹국이자 우방국이였다. 지난해 유엔 안보리 고위급 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을 존중하고, 특히 우크라이나의 주권·독립·영토 보전을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국제 질서의 초석인 유엔 헌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종결되는지에 따라 이미 다른 곳에서 시대에 오른 이러한 원칙들의 향후 위상이 결정될 것이다. **A2면에 계속**

정부, 엘리엇에 승소... 1600억 배상 면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 국민연금 개입은 정부와 무관” 英법원 판결로 원점서 재검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측에 1600억원(2월 기준)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 소송(국제투자분쟁·ISDS)

결과가 23일 뒤집혔다. 법부부는 이날 “정부가 2023년 ISDS 관정 결과를 취소해 달라고 영국 법원에 낸 사건의 파기 환송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원점에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다투게 됐다. 정부의 최종 승소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이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시작됐다. 옛 삼성물산 주

주 엘리엇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두 회사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 7억7000만달러(약 1조118억원)를 손해봤다며 2018년 7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ISDS 재판을 맡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23년 6월 “한국 정부는 엘리엇에 690억원과 지연 이자 등 총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이 사건 담당 법원의 영국 법원에 PCA 판결 취소 소송을 냈다.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

을 가진 기관이어서, 한국 정부가 배상하는 것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영국 법원 1심은 2024년 8월 한국 정부의 소(訴)를 각하했으나, 항소심은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환송심은 “국민연금이 국가기관이라고 전제하고 내린 판결은 잘못됐다”며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작년 11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에서도 13년 만에 결국 승소해 약 4000억원에 이르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박혜연·유희곤 기자

八面鋒

북한 9차 당대회, 김정은 3대 체제 떠받치던 '혁명 2세대' 퇴장하고 신진 대거 수혈. 4대 세습 준비도 시작?
“내 아이는 들러리냐?” 부모 민원에 수상자만 따로 모아 시상하는 졸업식 유행. '유종의 마=무민원' 된 학교 풍경.
멕시코 마약 카르텔, 두목 사살당하자 전국서 도로 봉쇄하고 보복 폭동. '법죄외의 전쟁'이 진짜 전쟁 수준.

민에는 원장

· 이명·난청 원치설명서 저자
· 이비인후학원 대표원장



제 2회 귀건강 힐링콘서트

소리의 기적, 삶과 사람을 연결하다

앵콜 요청 해도, 2026년 마지막 세미나! 빠른 예매 필수!

이명·난청 회복 세미나

베스트셀러 이명·난청 원치설명서 저자 민에는 원장과 함께하는 소리의 기적!

아직도 귀 때문에 하루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이명과 난청, 참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귀·뇌·몸 연결을 이해하면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참가 대상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이명·난청 불안, 우울감, 건망증, 인지장애가 동반된 청력 이상 갱년기, 수술, 임진단 후 발병한 이명·난청 오래된 이명, 난청, 이석증, 메니에르, 청력 신경 취약 환자

이명·난청 양·한방 의료진과 함께하는 참여형 세미나 지금 신청하기

일정 2026.03.29.(일) 오후 2시~5시

문의 010-9972-8081

장소 GB성암아트홀(9호선 선정릉역 1번 출구)

주최 메디힐포몰러(주)

신청서 QR코드